왈저와 홈의 자연주의 정치철학

- 이상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두 가지 대응-

김 은 희

【논문】

【주제분류】정치철학, 윤리학
【주요의】홈, 왈저, 정치철학, 정의론, 반이상주의
【요약문】왈저의 이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논쟁구도에서 공동체주의의 대표적 이론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왔다. 이 논문은 왈저의 이론을 공동체주의로 규정하기보다 이상주의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 규정한 것을 제안하면서 그러한 대안적 기환의 원형으로서 홈의 정치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왈저와 홈의 비교를 통해 이상주의(idealistic) 정치철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형태의 정치철학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할지 탐색해 볼 것이다. 대안으로서 제시된 정치철학은 홈의 정치철학에서 함축되는 보수성과 극한한 형태이어야 비판적할 것인데, 왈저가 홈과 달리 어떤 점에서 보수성과 극한이 없을지 발전하는 것도 이 논문이 해야 할 일이다.

2절에서 왈저를 홈과 연결하려는 논의하여 3절에서 홈의 도덕철학, 정치철학을, 4절에서는 왈저의 정치철학을 개괄한다. 5절에서 왈저와 홈의 기획은 이상주의의 함축하는 구체주의적 이상주의의 기획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보이고, 암자가 그 대안으로 자연주의적 정치철학을 시도한다는 점도 제시한다. 6절에서 암자가 제시한 대안적 기획에 함축되는 보수주의 문제를 논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홈의 정치철학과 왈저의 정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NRF-2009-351-00023).
본 논문에 대한 의명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들을 논문 중간중간에 수록을 통해 시도해보았지만 절의 능력부족으로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대답하기 못한 내용들은 필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 대답해 나가도록 하겠다.
I. 서론

이 논문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왕자의 정치철학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왕자의 이론은 그동안 현대 정치철학의 논쟁구도에서 공동체 주의의 대표적 이론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왔다. 이 논문은 왕자의 이론을 공동체주의로 규정하기보다 이상주의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러한 대안적 기획의 원형으로서 흥의 정치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왕자와 흥의 비교를 통해 나는 이상주의(idealistic) 정치철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형태의 정치철학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탐구해 볼 것이다. 대안으로서 제시된 정치철학은 흥의 정치철학에서 합숙되는 보수성을 극복한 형태이어야 바람직할 것인데, 왕자가 흥의 달리 어떤 점에서 보수성을 극복해내고 있는지 밝히는 것도 이 논문이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나는 2절에서 왕자의 흥과 연결하려는 논의할 것이고 3절에서 흥의 도덕철학, 정체학을 개괄하고 4절에서는 왕자의 정치철학을 개괄한다. 5절에서 나는 왕자와 흥의 기획은 이상주의를 합숙하는 구성주의적 이상주의의 기획에 대한 비판임을 보이고, 왕자는 그 대안으로 자연주의적 정치철학을 시도한다는 점을 보인다. 6절에서는 양자가 제시한 대안적 기획에 합숙되는 보수주의 문제를 논의하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흥의 정치철학과 왕자의 정치철학의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이상주의적 정치철학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자연주의적 정치철학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임시를 얻고자 한다.
II. 왜 흄과 왈저인가?

일반적으로 공동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는 페킨타이어, 테일러, 월저, 셰먼은 스스로를 공동체주의자로 부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공동체의 정책적 유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서구 민주사회에서 통용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민주국가에 있어 국가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적이다. 수밖에 없음에 인정한다. 그들의 문제의식은 정책을 정하는 데에 있어 개인이 우선이나 공동체가 우선이냐를 다지는 작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다. 어떤 종류의 정의관 즉 의무론적 정의관, 보편주의적 정의관, 추상적 정의관, 이상주의적인 정의관에 대한 통제적인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2)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간드적인 이상주의적(idealistic) 기회에 대한 공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공격을 하는 쪽은 공동체주의자 철학자들 외에 두파와 같은 급진 민주주의자들도 포함한다.3) 이렇게 볼

때 대립구도는 자유주의–공동체주의라기보다 이상주의(idealism)–반 이상주의(anti-idealism)라는 구도로 해석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런 구도를 통해야만 공동체주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앞지. 무패와 같은 이들의 주장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공동체주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환경이 가중될 뿐이다. 이 논문은 앞서가 이상 주의적 정치철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주의적 정치철학 기회를 하 고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상주의적 정치철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대의 자연주의의 정치철학은 폭게도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이 논문에서 “자연주의적 정치철학”이라고 부르는 입장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 입장으로 한정하겠다. 첫째, 자연주의적 정치철학은 간편적 이성법적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의 토대를 구하지 않는다. 자연주의의 정치철학은 인간의 이상 외에 사회와 역사로 통해 얻게 되는 암묵적인 감지를 통해 사고한다고 생각하며, 도덕적 행위의 토대는 어떤 이상적 원리(이념)로 구성되는 것이 라기보다 정념, 상상, 습관, 이익에 대한 감지와 같은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사회의 성립 근거는 이상과 이념에 있다고보다 사람 들 간의 투쟁, 세력균형, 해체포니, 관습에 의해 유지되거나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따라서 자연주의적 정치철학은 역학초월적인 이념 혹은 가치를 믿지 않는다. 그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보편적 이념으로서 따로는 도덕들은 사설 특수한 사실들이 증점되어 나타난 결과적 현실이다. 따라서 다른 사실들이 다른 방식으로 증점된다면 보편적 이념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초월적인 것으로 간주된 가치들은 사실상 현실적 경험에서 파생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현실적 경험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주의적 정치철학은 정당성

3) 무패는 이상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이상주의적 정치철학 전반에 강한 비판을 하며, 갑동주의적(agonistic) 정치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토마스에 대한 비판은 Chantal Mouffe,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1993) ch.3를 참조하고, 이상적 심리가 정치의 핵심적 활동이라고 보는 심리작술 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그녀의 최근의 책, On the Political (Routledge 2005)를 참조하면 좋다.
4) 나는 이런 규정이 우리가 혼란 말하는 "자연주의적 도덕철학"에 대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자연주의 정치철학"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내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주의"라는 말은 고전 율리학의ex nihilo를 소개하고 있는 김태길 교수의 규정을 참고하였 다. "자연주의 율리제도"란 자연적 사실, 즉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삼고 보편적인 인생의 목적 또는 절대적인 행위의 범위를 추론해 낸 수 있다고 말하는 견해를 두고 말한다. '있는' 원가가 '있어야 할' 강제를 받 혜에 있어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자연주의 율리제도는 적극적인 율리제도 일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원가가 '있어야 할 것', 즉 단위의 근거를 초정형적 '상제'에 구하고 있을음을 반대하여, 후자는 같은 근거를 경험적인 사실에 구하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략)... 자연주의적 율리제도 옥학자들의 대부분은 가치의 근거를 통해 인간에 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사실에 구한다..."(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92, 20쪽)

5) 역병의 어느 심사자는 자연주의 율리제도, 필자가 규정한 자연주의 정치 철학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주의 오류일 가능성은 높다고 지 적하였다. 심사자는 "자연주의 율리제도"는 가치의 근거를 인간에 관한 심 리학적, 사회학적 사실에서 구한다고 해도 보편적, 절대적, 탈앤트적인 이 상주의로 전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이런 가능성에 동 의한다. 자연주의 율리제도의 대표적인 율리 도덕철학은 인간의 보편적 성격 으로부터 보편적인 경제의 원리를 끌어내리려고 한 데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필자는 자연주의 율리제도 반드시 보편적 범죄를 근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한 높다고 본다. 만약 필자가 자연주의 정치철학을 항상 역덕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심사자의 지적은 필자의 논리에 근본적 으로 두여드릴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역덕주의적 정치철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성격이 있음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자연주의 율리제도 비보편적 되기 근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일 수만 있다면 필자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두려지지 않는다. 필자가 밝히고 싶었던 것은 역덕의 역덕주의적 보수주의의 원리를 반례로 지적의 원리에 의한 자연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최종 의도는 보수주의 원리에 의한 역덕주의적 보수주의의 원리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추상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정치철학 저술들과 역사 저술들을 통해 사회의 원리들이 사회와 역사와다 다른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회와 역사의 사실성을 수집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 원리를 밝혀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은 알리시가 제시한 방법론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리시 역시 사회 정의를 논하기 위해 각 사회들의 고유한 사실, 역사적 사실들에 주목하여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가치와 도덕을 찾아낸다. 알리는 보편주의적인 어떤 이상적 원칙을 찾아내려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주의적 기회를 비판하면서 대안적 정치철학을 제시한다.


7) 나는 알리시의 정치철학이 갖는 이러한 성격을 걸스턴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걸스턴은 알리시의 정의론을 어떤 특정한 곳으로부터 본 관점(the view from somewhere)이나 어떤 곳으로부터도 나오지 않는 관점(the view from nowhere)이 아닌 모든 곳으로부터 본 관점(the view form anywhere)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다. 걸스턴이 보기에 이런 유의 보편주의, 즉 알리시가 택한 보편주의는 초월적 형이상학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 공동체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걸스턴은 최소적 규범에 대해 알리시가 유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William A. Galston, "Community, Democracy, Philosophy: The Political Thought of Michael Walzer", Political Theory, Vol. 17, No. 1 (Feb., 1989), p.126.
적 공동체주의자인 테일러의 경우 헤겔의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자아실현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현대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로 불리는 알저 역시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헤겔의 기획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알저는 명시적으로 목적론의 복원을 주장하지 않는다.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현대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그의 생물학적 목적론을 폐기하고 그 목적 합리성을 관행(practice)이나 전통에서 찾는다.9) 그래서 매킨타이어는 전통 합리성, 관행의 목적성에서 도덕의 원천을 구하게 되어 보수성에 대한 협의를 받는다. 하지만 알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목적론 뿐 아니라 매킨타이어적인 복원도 대안으로 삼지 않는다. 알저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과 관행이라기보다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 의 경사와 경험에서 발생한 여론이다. 전통과 관행은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재도화한 것으로서 존중될 뿐이다.9) 따라서 알저에게는 목적론이 대안으로서 강조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테일러가 도입한 해결적인 기획 역시 알저의 기획의 특징을 말해주지 않는다. 알저는 해결절해가 젖어지는 형태학적 부담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저의 기획은 어떤 형태학적 전통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테일러처럼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해 개인이 추구해야 할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테일러는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이 단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에서 만족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이 주장에는 객관적으로 가치있는 것과 아

8) MacIntyre, After Virtue, pp.181-203.
9) SJ, p.32에서 보이는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강조 외에 알저는 Spheres of Justice 전반에 걸쳐 사회문제의 기준으로서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한 이해관계들을 강조하고 있다. 테일러 또한 알저의 해석의 방법은 사회적 관행들과 그 관행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두 요소를 재료로 가지는데, 후자가 전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Miller, "Introduction", pp.7-8.
10) 건스 테일러 지음, 공영석 역, '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2001, 47-60쪽.
نتائج을 구분하는 해 пед적 가치가 갈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 저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그러한 구분의 기준을 가지 고서 도덕성과 정당성을 논의하는 입장에 비판한다. 앞 저에게 있어 가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온 바를 기준으로 형성되며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결과를 드러낼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 암암리에 어떤 이념을 가정 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메킨타이어나 테일러가 도입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해론적 성격들은 앞 저의 기획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앞 저의 기획의 핵심은 반형이상학, 반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앞 저가 규정한 자연주의적 기획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나는 흔히 정치철학에서 이런 특징을 발견한다. 이 논문은 단지 앞 저의 정치철학과 흔의 정치철학의 연계성을 밝히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흔과 앞 저의 자연주의적인 기획이 다른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이 도입한 아리스토텔레스나 해론적 기획보다 현대 정치철학적 상황에 더 적절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현대 정치철학은 정치적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 특정한 형이상학적 유산들을 도입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앞 저의 정치철학을 흔적적인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는 기존의 형이상학 적 교섭에 암암리에 의존하는 공동체주의 입장을 차별화한 것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III. 흔의 자연주의적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تمكن의 도덕철학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즉, 이성주의 도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경념에 근거한 도덕의 도입, 경험적 방 법론의 강조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흔에 따르면 이성은 도덕적 분별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은 틀리다. 흔은 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직접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11) 흔에게(11)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with an Analytical
도덕적 분별에서의 이성의 역할은 행동의 토대인 정념에 중속적임 뿐이다. 토대, 혹은 이성적 토대를 거부한 후 도덕을 정념, 공감, 상상력, 습관과 같은 정감적 요소를 통해 규정한다. 그에게 있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정념이고, 어떤 행동이 다음을 막을 수 있는 곳 또한 정념이다. 자신의 내적인 의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행동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내적인 의지를 결정하는 정념이 아닐도록 도덕적 행동은 도덕무관한 행동과 구별시켜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정념은 습관과 상상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2) 인간이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홍의 공감의 원리는 상상력의 기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은 정념을 토대로 두면서도 이기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의 사회성에 근거한 도덕성을 인정하게 된다. 셋째, 홍은 경험적 방법을 중시한다. 그는 관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추정적 생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한다고 믿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는 그의 인식론과 도덕론을 하나의 과학으로 간주한다. 경험과 관찰,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인식과 도덕, 정치의 일반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인간의 경향성, 생활상, 공동체 생활, 역사를 관찰한다. 13) 이러한 그의 자연주의적 도덕철학의 특징은

---

13) 포브스(Duncan Forbes)에 따르면, 홍의 과학적 방법론에 존재한 인간본성의 향구성의 성격을 마주치게 해서, 일단 홍의 인간의 이학의 구성은 쉽게 이해된다. 그는 홍의 인간의 삼각지를 두 번째로 나둔다. 첫째, 홍은 "인간본성의 원리들이 규범에 의한 실험과 관찰로부터 추론되는" 원리이고, 홍은 "단순한 이학과의 목적에 이 인간원리들이 미칭되는" 그런 사례 속에 있는 인간의 구체적인 현상들에 이 원리들이 적용되는" 그런 근본이 되고, 포브스에 따르면, 홍의 인간본성의 향구성 전개에 대한 많은 역사가들의 비판들은 전 면에 반면 홍의 이상과 바라보기 때문에나 오는 비판이다. 포브스는 홍이 영세적 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인간본성의 향구성 전개를 사용하지만, 사회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활동과 그 활동의 성격은 향구성에 의해 두 번째로 국면이 드러난다고 대응한다. Duncan Forbes, Hume's Philosophic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104.
분배정의, 소유권, 정부제도의 근거를 논할 때에도 나타난다.

홈의 정치철학은 인위적 력을 논의하면서 등장한다. 인위적 력은 어떤 사회규서에 규정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력을 말한다. (분배적)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홈이 보기엔 인위적 절서를 통하지 않고 사익이나 공익으로부터 곧바로 정의를 입증하는 시도들은 모두 실패한 다.14) 홈에 따르면,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원래 내재한 경험이 원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 각자에게 모두 좋은 결과를 낳는 방식과 패턴, 즉 규약(convention)을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확립해가면서 얻은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하는 력이다. 홈은 이 규약이 결국 참여자들에게 효용을 창출하지만 의식적인 계산하에 사람들이 그런 규약을 만들고 참여한다기보다 사람들은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바에 의해 효용을 낳는 규약이 유지한다고 한다.15)

홈은 소유의 안정된 확립 역시 점진적 역사로 통한 규약(convention)의 발전의 결과로 보며, 소유권의 안정은 궁극적으로 공적인 유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본다. 홈에게 있어 소유권의 안정된 확립은 세월을 통한 사람들의 동의의 누적을 필요로 한다. 홈에게 있어 올바른 소유와 분배정의의 규약은 진화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무의식으로 체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때까지 계속 여러 패턴의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홈의 설명에는 시간의 계기가 중요하다. 홈이 비판한 계약론자들은 시간에 걸쳐 사람들이 체택한 결과는 무시간적으로 구성해 낸 올바른 기준을 믿는다. 홈은 그런 식으로 구성된 이성적 원리의 기준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사회를 유지하다 온 원리가 아닌기 때문이다. 홈이 간략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계약안을 구성하고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지를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통해 어떤 실천양식들 속에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과 교류를 하며 암

14) Hume, Treatise, pp.480-481.
목적으로 상호 이해 되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만들어 간다. 홈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흰색 생각한 자연스러운 마음이란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있고 이것을 계속 향유하며, 소유권 또는 항상적 소유가 직접적 소유와 결합되는 것”이다.\(^{16}\) 그는 시간을 통해 형성된 습관의 기제를 통해 이런 소유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주장은 강화한다. 즉, 홈은 모든 이들에게 각자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홈은 이런 소유권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홈은 그 근거로 사람들의 정적이 나아하려는 점과 사회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들었다. 규약(convention)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고 어떤 일을 한 후에 결과되는 불편과 편리를 서로 잘 느끼고 그것에 대한 의견교환이 자유로운 비교적 작은 사회에 적합한 결서임지만 확장된 사회는 정부라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17}\) 이때 공적인 유익과 필요의 견지에서만 홈의 정부론을 이해하는 것은 흔들어지지 않다. 홈은 세상의 모든 정부들이 폭력에 의해 발생했음을 계시한다.\(^{18}\)

계약론자들은 정부의 정당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충성의 정당성을 어떤 “원초적 계약”에서 찾지만 홈은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홈이 보기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정부들은 창설이나 정복이라는 기원을 가진다. 어떤 강자가 작은 무리의 수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무력이나 거짓명분을 통해 더 많은 인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잡는 식이다. 계약론에서 말하는 정부의 기원은 알고 보면 모두 이런 것이다.\(^{19}\) 하지만 이런 비판을 통해 홈이 폭력으로 정결된 기원에서 정부의 정당근거를 끌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정부의 기원을 계약, 동의, 양속에 두고 정부에 대한 충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계약론자들의 이론적 부적절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다.\(^{20}\) 홈에 따
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알아차려 의지를 모아 제약한 다는 것은 인간 본성상 가능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 은 것을 토대로 정부의 정당성을 검증해보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게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제약론자들은 ‘동의 받았던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의 받을 만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은 인민들로부터 동의 받을 만한지 여부 또한 정부의 정당성에 대 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모든 인민들이 다 자신의 정부에 동의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이민을 가지 않는 다는 점은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합축 한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이민이 선택 사항이 아닌 사람들도 많 다.\(^ {21} \) 흔에 따르면 동의와 약속이라는 기제만이 정부의 기원이고 정 부에 대한 충성의 토대라고 보는 주장은 맞지 않다. 흔은 우리가 정 부에 동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오 랜 세월동안 우리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부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듯, 흔에게 있어 정부에 대한 충성의 토대는 사실상에 있다.

하지만 흔의 정치철학에는 분명히 충성의 한계를 논할 여지가 존 재한다. 즉, 현 상태(status quo)에 대한 비판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 는 다른 형이상학이나 물리학에서와는 달리 도덕 관련한 문제, 즉 실 천적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여론(general opinion)”이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22} \) 그에 따르면 정부의 토대는 사람들의 여론, 즉 이익에 대 한 여론(opinion of interest)과 권리에 대한 여론(opinion of right)에 있다. 대중의 여론은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을 성립시키기에 는 부적절한 논거이지만 이익을 알아보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정부와 정치자에게 권리를 느끼는가를 다루는 논의에 있어서는 유일 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흔에 따르면, 충성의 의무가 중지하는 순간은

---

20) Hume, Political Writings, p.171.  
21) Hume, Political Writings, p.172.  
22) Hume, Political Writings, p.181, Hume, Treatise III, 552-553.
этому 원인의 이익이 증가되었을 경우이다. 물론, 우리의 습관화된
충성을 발생하는 도덕적 충성의 책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다. 23) 
하지만, 동시에 원인이 증가된 상태에서 그런 책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명분은 없다. 24) 따라서 어떤 정부 내지 통치자로부터 공적 유 
용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이익을 감지하 
는 사람들의 여론은 충성의 의무에 대한 여론을 변화시킬 것이다.

IV. 완저의 방법론, 정의론, 민주주의론

완저의 정치철학은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론들이 도입하는 탁학 초 
일적 관점의 방법론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구 
체적인 현실 탁학 속에서 경험하는 가치해석을 통한 정의론을 제시한 
다. 완저에 따르면 많은 현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이성 중심적인 구 
성명과 합의기제를 핵심요소로 두는 정의(invention)의 방법을 사용 
한다. 25) 풀즈와 하버드스 대표적이다. 그 방법에 따르면 이성적인 
존재들이 모여 일정한 구성절차에 따라 이성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합 
의를 해낸 신들의 바로 도덕이고 정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즉, “무지의 배인 터에서 혹은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된 대화를 
통해” 26) 우리가 정의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보편적 도덕적 해석을 새 
로 만들어 내길 원할 수도 있다. 완저가 보기에 이러한 방법론은 i ) 
불필요할 뿐 아니라, ii) 사실상 해석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i) 완저는 정의의 방법으로 얻은 보편적인 도덕을 우리 삶의 기준 
으로 놓는다는 것은 서로 공통점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타다 “살아나

23) 흔히 대체의 도덕적 책임은 이익에 대한 명확한 감지가 없어도 일종의 
규칙화된 관수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책임을 의미한다.
24) Hume, Treatise III, 551~553.
25) 여기서 완저가 말하는 정의 방법론은 실존주의자들에서 탁학적 관점의 임 
의적, 상호적, 관점주의적 측면과는 다르다. IS p.10.
26) Michael Walzer,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Harvard University 
가기(living)”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이방인들 사이에 필요한 최소적 도덕을, 이미 서로 간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삶(life)”의 기준으로 놓으려 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우리 사회는 그런 오직 “ 살아나가기” 위한 많은 도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알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에서의 사회는 충분히 공통적 문화와 정서, 도덕적 배경을 두럼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세계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안의 방법은 필요하다. ii) 장안의 방병은 강한 형태보다는 약한 형태가 더 성득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플즈적인 방법이다. 플즈의 장안은 새로운 장안이 아니며 기존 도덕을 모형화하는 구성이다. 그에 따라, 알제가 보기에 플즈의 이러한 방법은 장안이라기보다 해석에 가깝다. 이런 플즈적인 약한 의미의 장안의 방법은 기존의 도덕적 세계를 이념형 안에 넣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도덕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의존하며 그 도덕들이 취한 특성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때 알제가 보기에 플즈의 방법은 사실상 해석에 가까운데도 장안의 방법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장안은 그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물인 최소적 규범으로부터 다시 도덕적 문화와 법체계를 연역해내려고 하는 도덕적 문화의 방법에 대한 단일한 이해를 발생시킨다.28) 장안의 방법과 달리 해석의 방법은 기존의 두통계 뿐만 도덕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세계화, 정교화, 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알제는 말한다.29) 알제에 따르면, 장안의 방법은 성격상 해석적임에 불구하고 해석적 방법이 갖는 다원성을 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다. 그것은 장안의 방법으로 산출된 많은 도덕철학들이 수렴하지 않고 계속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현실만 보더라도 알제는 지적한다.30)

알제는 이런 해석적 방법을 도입하여 문제 정의에 관한 논의를 진

27) IS, pp.14-16.
28) IS, p.25.
29) 같은 조.
행한다. 그의 정의론의 핵심은 우리의 사회적 가치들이 다양한이어서 분배도 그 가치의 다원성이 맞게 다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며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가치들을 각기 다른 중요도로 분배하는 근거는 사람들이 그 가치들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understanding)를 공유해 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31) 이런 공유된 이해방식을 무시하는 분배는 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형성하고 이 분배 영역들은 고유한 분배 원칙을 가지는데 한 영역의 분배 원칙이 다른 영역의 분배 원칙을 침범할 경우 “지배(dominance)”가 발생하며 이것이 바로 알리가 비판하는 부정의의 상황이다.32)

이렇게 볼 때 알리가 말하는 정의와 평등은 사회 정원들이 받아들인 특정한 가치해석에서 파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그 사회 정원들이 부여한 특정한 의미와 해석에 따라 그 제도의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에 따르면 정의론은 “인류의 여론(opinion)”에 대한 정의적 존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33) 그것은 곧 사회 정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해석을 바탕으로 정의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리에 따르면 철학자들이 가장 이성적인 사고 모델로서 구성한 것을 통해 도출해낸 이성적 사회를 위한 정의 원칙은 사회 정원들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 경험하는 많은 양을 필요 이상으로 추상해내어 탁락에 대한 적절성을 잃을 수 있다. 알리에게 있어 해석의 방법은 사회 정원들이 자신들이 처한 공통의 정황 속에서 가지는 견해(여론)를 살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알리의 정의론과 방법론은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입장에도 연결된다. 알리는 이성적 숙고의 활동, 즉 심의활동(deliberation)이 정치적 영역의 핵심적 원리라고 주장하는 현대 심의 민주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정치는 이성 외에도, 종종 이성과는 긴장을 일으키는 다른

31) SJ, pp.6-8.
33) SJ, p.320.
가치들을 가진다. 정열(passion), 현신, 연대, 용기 그리고 경쟁이 그 것이다.” 34) 말자리가 살아있는 활동이라는 이성적 요소를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지적하려는 것은 정치는 다른 가치들 을 모두 아우르는 활동영역이라는 점이다. 말자리가 보기에 정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다. 35)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 즉 실의활동이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실의활동은 사람들을 규합하는 활동의 부분일 뿐이지 정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자리는 정치는 불일치와 갈등의 상황에서 승리할 경험하려는 투쟁이라고 본다. 민주적 방법을 통한 승리의 정당성은 실의활동에서 온다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점에서 온다는 것이다. 말자리 보기에 실의 민주주의자들은 우리가 모두 같은 이성적 추론을 하기를 원한다. 말자리는 실의활동은 타인을 이성적 존재로 간주하는 데에서 나오는 방법이지만 협상과 타협은 타인을 신념과 이해 관심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방법이라고 본다. 정치 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독립적인 이성적 추론을 하는 존재로 보고 같이 실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나름의 신념과 이해 관심(interest)을 가진 존재로 보면서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자리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의 평화의 원리는 이성적 일치가 아니라 갤필현상(modus vivendi)이다. 36)

35) PP, p.103. 그러시 왜나니, 실의 외에 정치생활에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열거한다: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조직(organization), 동원 (mobilization), 시위(demonstration), 성명(statement), 논쟁(debate), 협 상(bargaining), 로비(lobbying), 선거운동(campaigning), 투표(voting), 기금조성(fund-raising), 하드워크(scut work), 통치(ruling). PP, pp.92-102.
36) PP, pp.103-104.
Ⅴ. 흐름과 외리: 구성주의적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외리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흐름의 기록을 따르다. 첫째, 흐름과 마찬가지로 외리는 도덕과 사회의 원리를 이성적 원리라고 주장되는 것에 기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판한다. 둘째, 외리와 흐름은 그러한 설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주의적 기록을 제시한다. 그들에게 있어 정의원칙은 도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이성의 원리에 따라 미리 고안되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들 안에서 필요에 의해 형성해 낸 공감대(consensus)이다.

외리와 흐름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규범적 이념을 구성해내려고 하는 이성으로 보인다. 외리의 이성적인 사회의 모습을 구성해내는 방법을테카르티안적인 기록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테카르티안은 이미 세상에 신이 마련해 놓은 사물적인 질서나 진리를 발견한다고 보다 구성해낸다. 테카르티안적인 구성의 방법으로 도덕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도덕원칙을 얻기 위한 방법과 결과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구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이고 이 합의에 참여하는 존재는 입법가적 존재이다. 이 때 합의 상황은 모든 인간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그 합의의 제약조건들을 준수할 수 있는 이성적 대표인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인 규범을 만들기 위한 제약적 합의 공간에서는 의견이 다양한 데 있다. 상정적으로 볼 때 여러 이성적 존재들 간의 합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장 이성적인 추론을 잘 해낸다는 명의 결론과 같은 것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한 조정과 협상은 사실상 없다. 외리는 이렇게 선출된 도덕원칙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이익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든 이들의

37) 구성(construction)은 외리가 제시한 도덕의 세 방식 중 창안에 해당되는 사유방식이다.
38) IS, pp.9-11.
모든 상황에 대가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해결만을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그 사회의 매력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차별을 도덕원칙이 해주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홈의 경제철학 역시 이런 구성주의적 이상주의의 기회에 대한 비판을 의도한다. 그는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인간의 실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인양 원리로 구성하여 계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비판한다. 단순히 ' الخار남A와 '관념B의 관계를 인지함으로써 “도덕적이다”, “무도덕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시 이상주의의 도덕론은 인간이 실제로 도덕적이고 느끼는 방식보다는 관념들 간의 관계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이상적 추론의 방식이 도덕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이런 추론을 구성주의적 지성주의(constructivist intellectualism)의 전통이라고 부르며 홈의 철학을 이에 대한 비판적 기회로 바라본다. 이런 추론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rationalist)들에게 있어 이상은 드러난 어떤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보다 연역적 추론을 통해 명식적 전제들로부터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이상적 추론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구성주의적 이상주의의 전통의 주요 생각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시민들의 연합, 즉 사회의 평등의 원리인 정의(justice), 그리고 정의의 규칙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정부는 시민들 사이의 계약 혹은 약속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홈은 인간의 이상이 도덕성과 정당성의 토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거부한다.

이렇게 볼 때, 알지는 이상 구성을가 활동을 하는 이상을 비판하는 홈의 취지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정확히 양자가 비판

41) 본 논문에 대한 실례하지는 홈의 경제철학이 과연 이상주의(idealism)를 거부하였는가, 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의 대담은 다음과 같다. 알지는 사회비판과 사회개혁을 위한 실현가능한 이상적 사회
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알기에 흔한 단순히 이성 작용을 바판한 것은 아니다. 알기에 정의론의 토대로 삼는 사회 성원들이 공유한 이해방식은 곧 사회 성원들이 자신들의 공동 삶에서 느끼는 결실한 이해관심(interests)에 관한 이해방식(understanding)인 데 이러한 이해관심들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이성적으로 구성된 상황을 통해 정당성 주장은 제시하는 객관론을 바판하기는 하지만, 흔히도 합리 참여자들이 상호 이익에 대해 계산적인 이성 작용을 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42) 이를 고려한다면 흔히 알기가 바판하는 구성주의적 이성주의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첫째, 그것은 도덕이 사람들의 이해관심(interests)에서 파생한다고 보며 이성이 그런 도덕주의를 구성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그것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들(즉, 사실성의 영역)과 구분되는 당위·정당성의 영역에 따로 있으며 이런 당위의 영역도 도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믿는다. 셋째, 그것은 그러한 이성이 규정된 이상적 도덕적에 맞도록 현실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이성주의는 이상주의(idealism)로 나타난다.

하지만 흔히 알기가 보기에 도덕성과 정당성의 토대는 사람들이

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회비판가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다. 알기와 사회된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과학자나 아니면 문명 당위와 규범을 논하는 도덕론가이기 때문이다. 알기 역시 "이상(ideal)"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은 과학가 해석하기에는 알기가 규범적 주장은 하고 있다는 점에 해당한다. 즉, 모든 규범적 주장들은 넓은 의미의 "이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알기가 흔히적으로 도덕규범(이상)을 제시하기 위해 거쳐 온 과정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절삭한 도덕(이상)을 논하는 방식 중에 이상주의적인 방식과 반이상주의적인 방식이 있는데 알기의 방식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즉도 도덕적 주장은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이상주의적 방식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42) 흔히 계산적 이상, 도구적 이상을 인정하며, 사람들이 규약을 형성해 갈 때에 이른 계산적 이상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흔히 이상이 도덕성이나 정당성 자체를 구성해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기획은 허구적이고 불필요한 장치이다. 그들이 보기엔 사람들이 정념이 의지하는 방향으로 갈 나아가기 위해 이익을 타진하는 이성 작용을 하면서 질서와 관습을 만들고 그 것으로부터 정의 규칙을 얻는 것이지 정념과 관련없이 정당함을 찾는 이성 작용에 따라 정의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정치의 설명이 사실적인 설명이고 따라서 더 맞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기획이 주장하는 이성 활동과 방법들이란, 알고 보면 특정한 맥락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경험들에 근거한 생각들을 위장한 생각들일 뿐이다. 실의 민주주의자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형식)를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그런 절차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맥락의 영향을 받는 내용적 원칙들과 다른 위상을 지니다고 주장하지만, 알지는 결과적 도덕 역시 어떤 특정한 사회 맥락에서 만들어낸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즉, 내용에 중립적인이라는 절차는 사실상 특정한 내용의 위장한 것이라는 것이다. 좀도 역시 당시의 제약론을 위상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토대로 정당성 판단을 도출하는 것은, 이성주의자들이 인정하기 싫은 사실하지만 존재했던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일이 뿐이다. 알지는 로크가 자신의 제약론을 구상할 당시 실재로는 특정한 정황에 몰담고 그 정황을 위한 선전문으로서 그의 저술을 썼다는 점을 지적한다.\(^{43}\)

홈과 알저에게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현실의 사람들이 실제로 갖는 마음속에서 구해야 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정당성의 토대는 사람들의 여론이다. 그들에게 당위와 사실은 투명이 구분되지 않는다. 도덕의 문제를 사실상에 기초한다는 것은 자연주의 도덕철학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사실상에 기초하는 특징을 가진 일군의 입장들을 우리는 자연주의 정치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홈과 알저의 기획은 자연주의 정치철학을 성립시킨다고 할 수 있다.\(^{44}\)

\(^{43}\) IS, pp.52-55.
VI. 자연주의 기회에 함축되는 보수주의의 문제:

홈의 길과 왈저의 길

1. 보수주의적 함축

홈과 왈저의 빈바는 주의적 기회는 현실에서 정당성과의 토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들의 기회는 현 상대(-status quo-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관점을 형성하기 힘들고 따라서 보수의 함축하고 있다는 맥락을 받는다.

일단 홈의 정치철학에 있어 보수주의의 문제를 거론할 때, 나는 홈이 현대 정치적 관점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그림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 관객에 인물의 사상을 현대의 관점에서 편협하게 평가하는 일이다. 그럴 경우 폴라모도, 공자도, 예수도, 그리스 민주주의 정치가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 보수주의 사상가라 하게 되는데 이는 불공정한 결론이다. 나는 다른 의미의 보수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홈의 철학 체계의 성격을 동등한 안에서의 철학으로서 파악하고...
자 하는 홍 연구가 리빙스턴은 홍에게 가해지는 보수주의 현의를 부정하지 않고 ‘철학적’ 보수주의로 해석하여 궁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리빙스턴이 규정한 ‘철학적’ 보수주의는 일종의 반이성주의 내지 반어념주의(anti-idealism)이다. 리빙스턴이 제시하는 이러한 보수주의는 현상황(status quo)에 대한 부반성적 복종이나 특정 시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왕정 혹은 귀족 정치의 윤호라기보다 인간 스스로 이성적 추론을 통해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신념에 대한 거부이다. 이러한 의미의 보수주의는 사회 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데만 이성적 추론을 근거로 이상적 사회상을 구성해 놓고 근본적 변화를 열망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철학적으로 표현한다. 리빙스턴에 따르면, 홍은 철학이 관습, 공동생활의 편견들로부터 독립적인 믿음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잘못된 철학 개념을 따르면 우리의 총체적인 희의주의에 반지지 되므로 철학이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려 한다는 것이 홍의 기획 전체를 아우르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리빙스턴이 보기에 홍이 궁극적으로 불안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공동생활(common life)안에서의 철학이다. 공동체적 삶은 비판적 반성의 대상이 아니라 고유의 비판적 활동에 내적인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홍 철학의 정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에도 자신의 철학을 보수주의 철학이라고 일컫고 윤호하는 많은 사상가들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46) 이 일정은 이성주의에 대한 희의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한 희의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대안으로 자연주의적 결사를 대체하기 때문에 “온건한 희의주의”라는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리림스턴이 말하는 공동생활 안에서의 철학이라는 기획 자체를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보수주의적 성격이 정치철학에 있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움 것이다. 그것은 정치나 도덕의 진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도덕의 진보가 어떤 이상적인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일 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이나 반이상주의적 급진 민주주의자들은 리림스턴이 지적한 홈의 기획에 매우 가까운 결과적 태도를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장에 있어서는 진보적 정책의 편에서 논한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수주의 철학 자체가 부정적인 정치철학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구성주의적 이상성을 통해 정의론과 도덕론을 제시하는 철학자들은 사실상에서 정당성을 끌어내는 반이상주의적 기획들이 나쁜 의미의 보수주의 합족을 지닌다고 비판한다. 이 때 내가 말하는 나쁜 의미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강자 중심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은 이러한 보수주의 합족에 대한 것이었다. 앞에서 사회 구성주의의 공유 이해를 토대로 정의론을 제시할 때, 많은 비판가들은 그런 식의 정의론은 억압받았던 집단,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다고 우려한다.48)


---

2. 흐름의 길과 알자자의 길

흐름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상적인 제약론 상황을 미리 설정하여 소유제도와 정부제도의 근거를 규명하는 구성적 작업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설명으로 사람들이 협력상황에서의 상호이익 그리고 규약 유지의 공격 효용에 대한 감지(sentiment), 그리고 습관적 상상의 기제를 도입한다. 이때 흐름의 설명이 합성하는 나머 의미의 보수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흐름은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보다 협력한 상태가 나다 보면 협력을 유지하는 규약을 지키는 것에서 상호이익의 느낌을 공유한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의 협력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력을 유지하는 폐단이 존재한다는 것만이 흐름에게 인정되는 이익이며 흐름 이런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감지들 반향으로 제도의 정당성을 도출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배제도 혹은 소유제도에 대해 논할 때에 절서의 존재 자체가 주는 이익이 그 제도의 정의로움을 충분히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49)

알자는 규약, 제도, 절서 자체가 주는 효용에 대한 사람들의 감지에 근거하여 그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흐름에 어떤 규약A가 주는 효용은 규약A가 없었을 경우에 사람이 얻을 효용에 비교될 뿐이다. 하지만 알자에게 규약A가 주는 효용은 그 규약이 사람들에게 의해 해석된 의미대로 제대로 분배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알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어떤 현실 맥락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제조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공유한 그 해석에 따라 그 사회적 제조가 분배되어야 정의롭다. 알자는 단지, 그 제조에 대한 분배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효용을 인정하거나 그 효용의 발생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물론 흐름은 어떤 규약이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규약으로서 유지되기만 하면 효용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흐름 가장 좋은 규

약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보수성이 틀려 단서가 나타난다. 흔히 모든 사람이 자신이 현재 접해보고 있는 것을 계속 접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가장 익숙한 생각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권력의 승계나 이전에 대해서도 이런 익숙한 상성을 근거하여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정상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리 기제를 탐구했다면 그것은 그의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대안으로 서의 자연주의적 기회를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을 인간의 자연적 성향으로 규정하고 그 틀에 있어서 소유 권리를 논한다는 점에서 왜곡과 다른 결을 갔다. 앞서는 사회적 계획에 대해 그 사회 사람들이 자연


5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것을 계속 양용하며, 소유권 또는 재산적 소유가 직접적 소유와 결합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작각 나타난다. 소유권의 효력은 우리를 우리의 그동안 양용했던 것과 절연 뿐만 아니라 예측을 하도록 하며, 그 간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으로는 오랫동안 양용했던 것을 더욱 선호하도록 만드는 것 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눈에 안았고 자주 요용하게 사용했던 것이 아니요 옳고 오도하지도 않은 것은 소유하지 않아도 쉽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각자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양용하려 한다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편리하고 이는 보수주의를 양용할 것이라고, 이것은 (즉 소유권의 효력) 이런 방안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되는 개념이라 는 것은 당연하다." Hume, Treatise III, 503.

52) 흔히 제시한, 어떤 동체가 중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오래된 침략, 현재 침략, 정복, 계승, 실정법이다. Hume, Treatise III, 554-567.
스럽게 형성한 여론을 흘러 생각과 같은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사회에서 많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모든 인간의 필요라는 생각 때문에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해석에 따라 분배된다.
알자기의 기획은 이에서 더 나아간다. 분배의 정당성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공유 이해 혹은 공유된 가치 해석은 내재적 사회비판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사회적 계획에 대한 의미 해석을 강자 이익 중심의 결과에 맞게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공유 이해 방식일 경우 알자의 자연주의의 기획은 보수주의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알자는 내재적 사회비판의 메커니즘을 통해 보수주의 혐의에 대처한다. 알자의 내재적 비판론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벗어난 관점을 도입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내재한 도덕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이 비록 지배계급이 유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지배계급의 혜택도니 강약을 위해 더 많은 이들의 이익에 맞게 확장된 보편적 형식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의 특수 이익을 위약하기 위해 유호한 도덕을 교육받고 수용해서 결국에 지배계급이 도덕적 명분과 자신들의 실질적 행태 간의 갭을 보일 때 피지배계급은 그 도덕적 명분과 일치하지 않는 지배계급의 거짓을 지적하는 사회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알자가 바라본 사회비판은 사회 표절적 관점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현실 속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기준, 즉 사실성을 가지고 성립하게 된다.
홈에서 보이는 체제비판의 단서는 공익을 중단하는 것을 느끼는 인민들의 여론이다. 하지만 이에 공익은 결과의 유지는 주의 효율을 의미한다. 홈에서 이와 중요한 공적 효익은 안정된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기회에 있어 어떤 체제가 비판받는 경우는 이런 결과를 인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홈의 기획은 결과 유지를 정당성의 기준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홈은 인정

53) IS, pp.40-44.
결론

알지의 철학은 홍의 반이상주의적 기획과 그 대안으로서의 자연주의의 기획의 취지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이상적 사회상을 마련하기 위한 구성적 이상주의를 거부하고 현실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들을 토대로 정당성을 논하기 때문이다. 알지의 홍적 기획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시작하지만 홍적 기획과 다른 길로 나아간다. 홍이 분석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체계 유지를 따르는 마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알지가 분석한 사회성원들의 마음은 보다 전복적인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 전복적인 생각의 원천은 그 사회적 역할을 초월한 관점에 있지 않으며 그 사회 안에 이미 공유되는 생각들로부터 오지만, 그것이 전복적일 수 있는 것은 지배계급이 전략적인 의도에서 제시한 도덕 개념들이 어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들 품 때 반이상주의적 정치철학 혹은 그 대안으로서의 자연주의 정치철학은 그 자체로 보수주의를 합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이상주의가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기획은 전복의 가능성을 압축하는 해석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틀로서 철학자들은 이상주의적 기획에 주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알지나 무패와 같은 급진 민주주의자들은 그러한 기획은 비합실적이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치현상들에 대한 무기력하다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갈등주의적(agonistic) 정치관을 내세우고 있다. 나는 알지나 무패와 같은 급진 민주주의자들
의 철학적 기반이 자연주의의 기획에 있다는 주장은 이 논문을 통해 입증해보려 하였다. 이러한 입증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면 이제 현대에 특징적인 정치철학의 구도는 자유주의-공동체주의가 아닌 이상주의-반이상주의 혹은 자연주의 구도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54)

54) 적명의 어느 심사위원께서는 자연주의 vs. 이상주의라는 구도보다는 환저가 제시한 해석 vs. 창안이 더 적절한 구도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자연주의 정치철학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설정하고 토대하는 것은 사실, 보수주의 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현실중심적인 도덕 혹은 정책에서는 능 현실로부터 단기한 도출해내는 데에서 오는 보수적 문제가 함축되어 있었고, 이 점은 능 가능에 있어, 현실중심적인 기획이 지니는 매력적인 성능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패적인 것으로 남겨놓게 하였다. 해석적 기존의 사실들에 대한 연명 계계라는 정에서 보수주의적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필자는 이런 비판들은 결국 자연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귀착한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보수성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자연주의의 문제를 보아야 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자연주의로부터 보수주의적 함축을 계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대한 한 고찰이다.
참고문헌


Walzer and Hume: Two Ways of Confronting Idealistic Projects

Kim, Eun-Hee

Walzer’s political theory has been regarded as a kind of communitarian theory.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at his theory should be characterized not as a kind of communitarianism but a kind of anti-idealism and as an alternative to idealism. In order to work it out, I show that Walzer’s ideas can be traced to Hume’s political philosophy. By comparing Walzer and Hume, I draw the conclusion that Walzer’s alternative is better than Hume’s, because the former can overcome the problem of conservatism while the latter cannot.

First, I deal with the connection between Walzer and Hume, then survey each political theory, and show that both of them are characterized as projects rejecting idealistic political theories and suggesting a naturalistic account as an alternative to an idealistic one. Finally, by dealing with the conservative implications of their naturalistic projects, I clarify some differences between Walzer’s theory and Hume’s.

Keywords: Hume, Walzer, political philosophy, theory of justice, anti-idealism